

대한민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 성료

4일간 전시·강연·공연 등 109개 프로그램 진행 소재 차별화 新브랜드까지 '문학도시' 구축 평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이자 예비문화도시인 목포시가 새롭게 선보인 '2021 목포문학박람회'가 예향(藝鄕)의 품격을 높이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평화광장 등에서 전시, 강연, 공연 등 109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문학

박람회는 시민, 학생, 관광객, 외국인 등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치르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목포문학박람회를 찾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학박람회는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박람회라는 점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목포시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진섭, 황현산, 최인훈 등 우리나라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긴 문학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활동했던 역사를 밑바탕으로 전례가 없는 행사를 시도했다. 소재를 목포 문학에 그치지 않고 남도, 우리나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시선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선보이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의 장으로 박람회의 골격을 짰다.

상당수 시민들은 "목포와 인연이 깊은 훌륭한 문학인이 많고 이들이 우리나라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된 박람회였다"며 "목포의 훌륭한 문화예술 자원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광객들도 "목포 문화예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였고 목포에서 우리나라로, 과거에서 미래로 펼쳐지는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전시, 공연, 강연 뿐만 아니라 잔디밭에서 문학으로 힐링하는 웰니스 테라피존도 코로나 시대에 매우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내 최초로 열린 '목포문학박람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시, 강연, 공연 등 10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목포시 제공>

시는 박람회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라는 명성을 확고히 구축했고 특히 음악, 미술, 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문학의 역할과 우수성을 알리며 '문학도시'라는 브랜드를 얻게 된 것으로 자평했다.

김종식 시장은 "문학박람회는 문학도시로서 가능성과 역량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문학박람회의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 문학도시로서의 면모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혜선기자



해남에서는 최근 가을 진미(眞味) 삼치회가 본격 판매돼 인기를 끌고 있다.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 지방이 오른 삼치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해남산 삼치회에 흰 쌀밥, 김, 묵은지까지 곁들이면 '삼치삼합'이라 부를 정도로 별미다. <해남군 제공>

땅끝서 맛보는 가을 眞味 '삼치회'

해남김·쌀밥·묵은지 '삼치삼합' 해남8미 선정

해남 땅끝마을에 가을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 삼치가 찾아왔다. 9월부터 잡히기 시작한 삼치는 날이 선선해지는 요즘 지방이 오르면서 삼치 특유의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삼치는 구이나 조림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싱싱한 삼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해남에는 별미 '삼치회'를 찾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에 출항해 추자도 인근에서 잡아 오는 땅끝 삼치는 전통방식인 채누기로 잡기 때문에 그물로 잡는 다른 지역보다

신선도가 월등하다. 삼치회는 먹는 방법 역시 고추냉이에 찍어먹는 일반 회와 다르다. 살이 연한 삼치는 껍질을 제거한 후 살짝 얼리거나 그대로 두껍게 썰어 간장과 파, 고추가루, 참기름 등으로 만든 양념장을 찍어 김에 싸서 먹는다. 여기에 따뜻한 밥을 살짝 얹어 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삼치회 만의 고소함은 비교 불가다. 해남에서는 묵은지를 더하기도 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부드러운 삼치회, 아삭한 묵은지까지 합쳐지면 '삼치삼합'이라 부를 정도로 귀한 대

접을 받는다. 삼치회는 찬바람이 나는 가을 땅끝마을을 찾길 어디서나 맛볼 수 있다. 또 해남 전역의 음식점에서도 땅끝에서 당일 공수한 삼치회를 취급하고 있다. 삼치회는 해남군의 해남8미에도 선정돼 타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해남의 대표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땅끝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원양씨는 "해남 땅끝에서 잡힌 삼치는 전국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맛으로 잡은 즉시 관내 식당으로 공급돼 전량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계절별미 삼치회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60억 확보

환경부 공모 선정...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조성

강진군은 11일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도시 인구 증가와 개발 확장으로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복원을 추진,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생·고유종의 재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군 중 강

진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선정됐다. 군은 지난 5월 강진을 남포리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 6만2천857㎡에 지형·식생 복원, 서식처 기반 마련, 자연환경·이용시설 조성 등을 위해 사업을 신청하고 환경부와 지속 소통하는 등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오는 12월까지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읍 보은산과 강진천

을 따라 강진만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생태축의 지형·식생 복원 등을 통해 강진만에 서식하고 있는 1천131종 야생 동식물의 은신처·서식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만 갈대밭은 천연기념물 큰고니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 동식물 10여종이 서식하는 생물자원 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자원"이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진도경찰, 도서 취약계층 보호 활동 호응

도서전담경찰관 'IPO' 특수 시책 운영 '주목'

자치경찰 1호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진도경찰서의 '도서전담 경찰관 IPO' 맞춤형 치안활동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경찰서는 11일 "경찰서장을 포함 10명의 경찰관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전담 경찰관 IPO'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사진> IPO(Island Police Officer)는 경찰력이 닿지 않는 유인도서에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 발굴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섬 담당 경찰관을 의미한다. 진도경찰서는 도서지역마다 IPO를 지정, 범죄 예방과 섬 주민 치안 관련 민원 해소 위해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도경찰서는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죽향도, 청도도를 방문했다. 담당 IPO가 마을이장, 도서지킴이,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재발 우려 가능성이 있는 범죄 피해 가정을 방문, 범죄 피해사태 확인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의 적

극 시행을 위해 노인 성범죄, 노인학대, 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대상 범죄예방 사례 공유, 112 신고 활성화 홍보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진등록, 배회감지기 배부 등 선제 방문 점검도 실시했다. 김진조 진도경찰서장은 "최근 경찰력이 충분하게 미치지 않는 유인도서에서 사회적 과제가 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IPO 활동을 적극 전개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 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팀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 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D무중력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이마사지 | 3D마사지 | 히리오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패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인체공학적으로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